

제13장 숲과 시민참여

■ 요약

- 숲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은 시민 자치의 실현, 시민 합의의 형성, 시민 간의 교류, 지혜의 총결집, 개방된 행정, 자연환경 의식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 시민 참여의 유형은 활동내용에 따라 관리운영에 대한 참여, 트러스트 운동, 조성 과정에 대한 참여, 법제도를 바탕으로 한 참여, 형식화되어 있지 않은 자발적인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 녹지활용계약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된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 녹화계약은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자연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합의형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정으로 체결하는 제도이다.

■ 연습문제

1. 숲 가꾸기에 대한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시민 자치의 실현 ② 시민 합의 형성
- ③ 개방된 행정 ④ 아이디어 분산

해설 : 시민참여에 의하여 숲을 보전·육성·창출하는 데 시민 참여가 필요성과 의의는 시민 자치의 실현, 시민합의형성, 시민간의 교류, 지혜의 총결집, 개방된 행정,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변화에 있다. (교재 349~351쪽)

2. 국민의 숲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체험의 숲 ② 단체의 숲 ③ 마을숲 ④ 사회 환원의 숲

해설 : 국유림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숲 가꾸기 등 보호·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숲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교재 363쪽)

3.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된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는?

- ① 녹지활용계약 ② 녹화계약 ③ 국민의 숲 ④ 녹지실명제

해설 : 녹지활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토지는 식생이 양호한 토지를 우선으로 하나, 나지(裸地) 또는 방치된 토지, 자투리 토지 등도 토지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다.(교재 363쪽)

4.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민간의 역사적인 건축물의 보존과 자연보호를 위한 단체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하여 보전, 관리하는 단체는?

- ① 그라운드 워크 ② 내셔널 트러스트
- ③ 그린피스 ④ 그린 트러스트

해설 : 일반적인 신탁(trust)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활동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하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이다.(교재 356쪽)

5. 시민참여의 방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 ②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다양한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 ④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해설 :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 기부문화 확산, 과정중시,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 파트너십관계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재 349~350쪽)

6. 내셔널트러스트가 처음 시작된 나라는?

- ① 스위스 ② 독일 ③ 미국 ④영국

해설 : 내셔널트러스트는 1895년에 영국의 변호사 로버트 헌터(Robert Hunter), 여류 사회활동가 옥타비아 힐(Octavia Hill), 목사 캐논 하드윅 톤즐리(Canon Hardwicke Rawnsley) 세 사람이 설립하였다.(교재 356쪽)

정답 1. ④ 2. ③ 3.① 4. ② 5.① 6.④

■ 심화학습

1. 숲과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의의

- 시민 자치의 실현 : 참여를 통해 시민과 행정관청이 연대하여 숲 가꾸기 및 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 공유와 역할 분담하게 된다.
- 시민 합의형성 :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로 숲 가꾸기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의 우선순위 및 이해 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
- 시민 간의 교류 : 참여한 시민들끼리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형성이 기대된다.
- 지혜의 총결집 :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인 에너지 결집되며, 시민, 행정가, 전문가 등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지혜를 모을 수 있다.
- 개방된 행정 : 행정은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시민은 행정의 입장을 생각하는 관계 구축되어 시민과 행정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시민도 행정과 공통된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협동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 : 참여를 통해 숲에 대한 중요성, 문제점 등을 체험함으로써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이 변화된다.

2. 시민참여의 유형

1) 관리·운영에서의 시민 참여

- 산림, 공원, 하천, 가로수 등과 같은 공공 공간에서 숲가꾸기 활동,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공원 내 시설과 생물서식처의 유지관리, 모니터링, 미화활동, 탐방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이 있다.

2) 트러스트 운동을 통한 시민 참여

- 보전 가치가 있는 숲은 국민이 토지를 매입하여 보전하거나 개발에 의해 훼손 위기에 놓여 있는 숲의 보전활동, 부족한 숲의 확보,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전개된다.

3) 조성(입안)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 공원 조성 시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받아들이고 상호 이해와 합의 속에서 조성되는 방식으로, 조성 과정에서 설계전문가가 시민과 의견을 교환하고, 설계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수혜자 중심의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다.

4) 법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참여

- 행정 주도형으로서 법 또는 조례, 자치단체의 녹지 관련 시책 등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 도시 내에 공공의 숲공간을 보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시민의 자발적인 도시녹지 참여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위치를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 국민의 숲 : 국유림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숲 가꾸기 등 보호·육성사업에 참여 하고 있다.
- 녹지 활용 계약 :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숲을 토지의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된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 대상토지 :최소 300㎡ 이상의 단일토지
 - 계약기간 : 5년
- 녹화계약 :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자연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합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정형식으로 체결하는 제도이다. 주요 대상지는 주택지, 상업·업무지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이나 생활 주변 지역이 해당된다.

5)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 법제도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적인 숲 공간에 지역 공동체 활동,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숲 조성과 관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 주로 주택지, 상업지, 공장 등의 사적인 숲 공간을 비롯하여 공공성을 가진 숲 공간에 해당된다.
- 환경생태적인 면, 정서적인 면에서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지역 공동체 회복의 기회가 된

다.

6) 기업의 참여

- 기업의 사회 공헌화 사업의 하나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다.
- 기부금, 현수·현물, 1사 1마을공원 조성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3. 숲과 시민 참여의 향후 과제

- 시민 참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 다양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다양한 보전방식을 모색되어야 한다.
- 결과보다는 참여 과정이 중시되어야 한다.
- 숲의 보전과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숲의 관리주체와 참여자 간에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 구축되어야 한다.

■ 용어해설

- 녹지관리실명제 : 시민의 공공자산인 나무, 숲, 녹지공간 등을 시민 개인이나 단체가 지자체의 행정지원과 전문집단의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각종 편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 약칭은 NT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하여 시민 주도로 영구히 보전·관리하는 시민환경운동이다.